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CONTENTS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Higi Health,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Babylon에 피인수 1
- 영국 NHS England, 디지털 정책의 우선순위를 발표 1
- 일본,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과제 해결 추진 2
- 웨어러블 헬스케어, CES 2022에서 선보인 새로운 혁신 2
-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 미래를 변화시키는 150개 기업 3
-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 '22년 투자 동향 전망 3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21년 승인한 50건의 신규 의약품 목록 발표 4
- 영국, 여성들의 건강 전략에 대한 정책 보고서 발표 4
- 유럽 Brugel, mRNA 백신 기술과 공공백신 R&D정책 분석 5
- 일본, 헬스케어 생태계의 구조변화와 새로운 가치창조 필요 5
- 미용주사제 시장, 소비자 구매력 확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6
- 치매 치료, 세계적인 연구개발 협력체제 필요 6
- 바이오제약, '22년 상반기에 주목할 임상시험 동향 7
- WEF,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PPP 모범사례 제시 7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Higi Health,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Babylon에 피인수

■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바빌론헬스(Babylon Health)社は 미국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형 식료품점이나 약국 등에서 볼 수 있는 건강 측정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기업인 히지헬스(Higi Health)社를 인수

- 최종 완료된 Babylon의 Higi 인수는 전략적 투자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20년 5월부터 시작한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상에서 시작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Babylon은 Higi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490만 달러의 현금, Babylon의 A등급 390만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200만주를 Higi 측에 지급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특정 기간에 기업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면 무상으로 지급하는 주식으로, 일종의 성과보상체계
- Babylon은 이번 Higi 인수를 통해 도시 지역에 비해 심장병이나 암,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농촌 지역의 만성병 환자들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Mobi Health News, 2022.01.05.; STAT, 2022.01.06.]

영국 NHS England, 디지털 정책의 우선순위를 발표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잉글랜드(NHS England)'는 '22~'23 회계연도 기간 동안 NHS에서 추진될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진단과 처치 및 치료가 필요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적시 대처 방법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대처 방법에는 통합케어 시스템(ICSS)에 기초한 파트너십 구축 등이 포함
- 디지털 정책의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팬데믹 기간 중에 습득한 경험을 기초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 모델을 도입'한다는 기초하에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병상'의 개발 및 확대가 NHS의 디지털 전략 중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현재 53개 수준의 가상 병상을 2,5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Digital Health, 2022.01.10.; NHS, 2021.12.24.]

일본,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과제 해결 추진

■ 일본은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보장 재정의 적정화' 실현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일본의 사회과제 해결방안을 모색

- 일본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비를 구성하는 의료비 추이를 보면 '09년부터 '19년에 걸쳐 약 24% 증가
- 최근에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활습관과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당뇨 환자 증가가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의료비 내역을 보면 전체 의료비에서 10대 생활습관병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며 내역을 보면 당뇨병·인공투석이 과반수를 차지
- 당뇨 합병증 가운데 신장질환은 증증이 되면 신부전으로 인공투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의료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당뇨성 신장질환 증증화 예방 프로그램을 개정·강화하고 생활습관병의 증증화 예방사업을 전개
-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EY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년부터 건강검진·의료·간병 관련 공적DB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모델로 인공투석 고위험 환자 예측과 지자체로의 환원을 실시

[EY, 2022.01.05.; 毎日新聞, 2022.01.05.]

웨어러블 헬스케어, CES 2022에서 선보인 새로운 혁신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2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CES 2022 국제 IT·전자제품 박람회'는 전 세계적으로 총 2,200여개사가 참가하였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신체의 기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웨어러블 기기 등 많은 웨어러블 신제품이 공개

- 건강과 웰빙 기능을 담은 스마트워치의 가용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워치에 혈압, 심박수, 전기심장 심전도(ECG), 생체전기 임피던스, 골격근량, 기초 대사율, 체지방, 체수분, 수면, 코골이 등을 포함한 건강의 여러 생체 인식을 측정하는 센서를 결합하기 시작
- Abbott Laboratories는 당뇨병 환자가 혈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형 웨어러블 센서 및 스마트폰 앱인 FreeStyle Libre 시스템을 선보였으며, Owlet은 부모가 원격으로 영아의 심박수, 산소 수준 및 수면 추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을 출시
- 리서치 회사 IDC는 '21년에 전년대비 23% 증가한 5억 4,700만 개의 웨어러블 기기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25년에 7억 7,700만 개의 웨어러블 기기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

[Investor's Business Daily, 2022.01.06.; Health Leaders, 2022.01.04.]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 미래를 변화시키는 150개 기업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스(CB Insights)는 가상진료, 디지털치료제·자가지원도구, 컴퓨터 지원 영상, 선별·모니터링·진단, 워크플로우 디지털화·자동화 등 총 1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미래의 헬스케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20년 세계 디지털헬스 150개 업체를 선정

- '21년 선정된 디지털헬스 150 기업들은 '16년부터 522건의 거래에서 약 149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초기 단계 기업부터 총 17개 기업이 선정된 유니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 단계의 신생 기업을 포함
- CB Insights는 지원자와 후보자가 포함된 전 세계 1만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우수성, 비즈니스 모델, 시장성, 성장 잠재력, 투자자 구성 등을 평가하여 150개 업체를 선정
 - *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AI 의료영상기업 루닛(Lunit)이 3년 연속 선정
- 선정된 150개 업체를 국가별로 구분하면, 글로벌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전체에서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이 9개, 인도 4개이며, 한국, 중국,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독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총 18개국의 디지털헬스 기업들이 포함

[CB Insights, 2021.12.08.; CISION, 2021.12.08.]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 '22년 투자 동향 전망

■ 글로벌 의료시장 정보매체인 피어스헬스케어(Fierce Healthcare)에 따르면, '22년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원격의료 △웨어러블 기술 △디지털 정신건강앱 △디지털 여성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시장에 투자가 집중할 것으로 전망

- 원격의료의 사용은 팬데믹 이전 기간에 비해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2년에 웨어러블 시장 수요자는 전 세계적으로 3.2억명, '24년 4.4억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최근 원격의료 분야의 대기업들은 신장질환과 같은 고비용 의료 서비스 분야에도 원격의료 기술 적용을 시작
-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된 스트레스나 분노에 대처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포함한 가상 행동 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2년에 모바일 정신건강 앱에 대한 글로벌 투자규모가 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기반의 여성 헬스케어는 '21년 1분기에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투자자금 모집에 성공했으며, '27년에 6백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21년에 34억 달러 규모에서 '26년에는 13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Fierce Healthcare, 2021.12.22.; FE Healthcare, 2021.12.28.]



4대 보건산업

미국 FDA, '21년 승인한 50건의 신규 의약품 목록 발표

■ 미국 식약청(FDA)의 약품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는 '21년에 FDA에서 승인을 받은 50건의 새로운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의 목록과 함께, 이들 신약 제품군의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전년도 53개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

- CDER은 매년 광범한 영역의 신약과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승인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50건의 리스트에는 백신이나, 알레르기 관련 제제, 혈액 혹은 혈장 관련 제제, 세포나 유전자 치료 제제 등은 불포함
- 목록에 포함된 일부 약품은 새로운 성분의 제제(new molecular entities, NMEs) 범주에 포함되며, 이들 NMEs는 기존에는 단일 성분 또는 복합제제 어느 경우에도 승인이 난 적이 없었던 유형을 지칭

* 새로운 성분의 제제(NMEs)는 식품이나 약품, 혹은 화장품 관련 법에서 새로운 화학 성분이나 새로운 화학 성분이 포함된 원료로 제조된 제품으로 정의

[FDA, 2021.01.06.; Nature, 2022.01.04.]

영국, 여성들의 건강 전략에 대한 정책 보고서 발표

■ 영국 정부는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관련된 5가지 핵심주제와 생애과정의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여성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구체적인 전략은 '22년 봄에 발표될 예정

- 영국 정부는 여성 건강 정책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전역의 16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광범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및 포커스 그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 방향을 제시
- 여성 건강 정책을 사춘기~24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기, 25~50세까지의 중년 및 가임기, 51세 이후의 후반기로 나누어 시기별로 부인과적 조건이나 성적 보건 및 임신 가능성, 골반 및 월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사용
-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정신건강이나 골다공증, 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한 문제와 여성의 보건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검토,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작업장의 건강 및 안전, 관련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와 증거, 여성들의 목소리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

[GOV.UK, 2021.12.23.]

유럽 Bruegel, mRNA 백신 기술과 공공백신 R&D정책 분석

■ 유럽의 싱크탱크 브루겔(Bruegel)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기술의 개발 과정을 분석하면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서 글로벌 사회의 이익을 제고하는 정책 방향과 공공백신 연구개발(R&D)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

- mRNA 백신 기술은 COVID-19 팬데믹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백신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기술의 개발 과정은 누적적인 혁신과 개발 역량의 장기적인 과정이며, 작은 실수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매우 험난한 과정으로 평가
- 보고서는 강력한 글로벌 백신 생태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공공백신 R&D 정책은 글로벌 사회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Bruegel, 2021.12.13.; News Medical, 2021.12.24.]

일본, 헬스케어 생태계의 구조변화와 새로운 가치창조 필요

■ 일본의 헬스케어 산업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이동, 의료의 개별화, 디지털 기술 진화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환자 중심의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관련기업과 기타 헬스케어 관련 조직의 가치창조 방법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

-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료비의 대부분이 사용되던 헬스케어 전체의 가치풀은 ‘예방’, ‘진단’, ‘디지털헬스’로 이동
- 헬스케어 시장의 가치에 변화를 초래하고 헬스케어 생태계 형성·진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은 △규제환경 변화 △사회구조 변화 △기술혁신이며, 전통적인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은 사업모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반면, 기술기업, 스타트업, 소비재회사 등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포착
- '30년까지 헬스케어 생태계는 ‘치료에서 예방으로’라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치료에 중점을 두던 제약회사, 의료기관들은 예방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료 장소 역시 점차 환자의 일상생활과 가까워지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별화되면서 환자의 생활의질(QOL) 향상을 도모
- 이러한 변화의 전제로 디지털 헬스 진전, 즉 개인의 건강 및 의료정보 축적·공유·활용이 있으며 그 점에서 특히 대형 IT기업이 담당하는 역할과 사업기회가 크다고 판단
- 반대로 이러한 헬스케어 생태계의 구조변화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모델을 진화시키지 못하거나 흐름을 저해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가치풀에서 기회를 놓치게 될 전망

[Strategy&, 2021.12.24.; Beyond Health, 2022.01.01.]

미용주사제 시장, 소비자 구매력 확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McKinsey)가 전 세계 1만명 이상의 소비자들과 500명 이상의 헬스케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미용주사제(aesthetics injectables) 시장 규모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2~14%를 보일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용 클리닉이나 의료용 스파 등의 접근 채널 확대와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 구매력의 지속적인 확대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S&P500 지수가 5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주사제 관련기업의 시가총액 하락율은 20%에 불과했고, 매출규모 역시 2.4%만 하락

* 실제로 '20년에 7% 가까이 위축되었던 미용 시장은 '21년에 급반등하는 양상

- 미용 주사제의 주 고객은 피부 미용에 관심이 높은 40대 이상의 부유한 여성이었으나, 최근 중국은 고객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서도 잠재적인 고객층이 확대되는 양상

[McKinsey & Company, 2021.12.22.; Vogue, 2022.01.05.]

치매 치료, 세계적인 연구개발 협력체제 필요

■ COVID-19 팬데믹에 가려져 각국은 치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높아지는 각국의 치매 발생률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협력과 결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분야

- 향후 수십 년간 치매가 주는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예측한 결과, '20년~'50년 부담이 2배 이상이라는 의견이 많고 일부 연구는 9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간병자가 되면서 노동력이 감소되고 생산성 저하를 유발
- 치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커지는데 반해 치료법, 지지요법, 예방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으로 미미하며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임상시험 수는 알츠하이머보다 50배 많은 상태
- 1998년~2017년 완료된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시험 150건을 분석하면 146건이 실패로 끝났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것은 단 4건으로 성공률은 2.7%에 불과
- 이러한 임상개발의 실패율을 개선하고 치매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자금 지원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관련된 우대조치 강화 △중·저소득 국가에서 환자의 비용부담 흡수를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환자의 접근 지원 등 3가지 분야에 선진국의 투자가 필요
- 또한 전 세계 의료시스템은 치매환자 케어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중소득 국가는 환자나 가족을 위해 학제적(學際的)인 팀 기반의 케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

[國際通貨基金, 2022.01.05.; Forbes, 2022.01.04.]

바이오제약, '22년 상반기에 주목할 임상시험 동향

■ 글로벌 의료정보 매체인 바이오파마다이브(Biopharma Dive)는 '22년 상반기에 주목해야 할 10가지 임상시험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

□'22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임상시험동향□

제약업체	치료제	치료유형(임상시험명)
Pfizer, Arena Pharmaceuticals	궤양성대장염(Ulcerative colitis)	저분자(Elevate UC 12)
Sanofi, GlaxoSmithKline	COVID-19	단백질 백신(VAT008)
Roche	알츠하이머(Alzheimer's)	항체(Graduate 2)
AbbVie	낭포성섬유증(Cystic fibrosis)	저분자(NCT04853368)
Gilead	유방암(Breast cancer)	항체-약물 접합체(TROPICS-02)
Karuna Therapeutics	조현병(Schizophrenia)	저분자(EMERGENT-2)
Intercept Pharmaceuticals	비알콜성 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저분자(REGENERATE)
Allogene Therapeutics	거대B세포림프종(Large B-cell lymphoma)	세포치료(ALPHA-2)
GlaxoSmithKline, Pfizer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백신(NCT04886596, RENOIR)
Anylam Pharmaceuticals	ATTR 심근병증(ATTR cardiomyopathy)	RNA 간섭약물(Apollo-B)

[Biopharma Dive, 2022.01.03.; PharmTech, 2021.12.16.]

WEF,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PPP 모범사례 제시

■ 세계경제포럼(WEF)은 COVID-19 팬데믹 대응과 회복에 공공-민간의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제점과 이해관계자의 규명, 공동 거버넌스 모색, 기존의 이해관계의 정리와 재정 지원 등의 모범사례를 제시

-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다양한 비전염성 질환, 인구 고령화와 같은 복잡하고 대규모의 헬스케어 문제들은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장기적인 헬스케어 예산 부족을 야기
- 공공-민간의 파트너십(PPP)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PPP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며, 신속적인 규모로 운영 필요
 - * 실제로 PPP는 헬스케어 영역 뿐 아니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에너지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상황
- PPP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모범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문제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규명 △공동 거버넌스의 모색 △기존 이해관계의 정리 △적절한 재정 지원, △파트너로써 공공 부문의 개입 △탄력적 규모 확대 등 6가지의 특성을 보유

[World Economic Forum, 2021.12.16.]